

2011년 4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갈라 3,27)”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는 4월, 굴리엘모 요셉 샤미나드 신부의 가족과 함께.

1. 페리그(PERIGUEUX, 1761-1771년)

거룩한 가정이며 !

굴리엘모 요셉 가족은 몇 번의 어두운 시기를 거쳤지만, 신부님의 인간적인 사랑,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통해서 볼 때, 대단히 감동을 받을 만한 가족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신부님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자!



◆ 할아버지 : 요한 샤미나드 (Jean Chaminade)

페리그와 뮤시당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생파스티에(Saint-Astier)에서 조각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 어머니 : 카타린드 브통(Catherine Bethon)

페리그에서 상업을 하는 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 분의 조상들은 스위스 태생이었다. 개신교 신자들이었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B. Origenes 1)

“ 제가 신부님으로부터 그 분의 어머니에 대해 들었던 것은, 신부님의 어머니는 아주 고귀한 영혼과 뛰어난 인격을 지니신 분이셨는데 신부님은 당신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므슈 아쥐지에(M.Enjugier)씨의 증언)”

그녀는 참다운 신앙인이었으며, 그녀의 머리맡에는 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는 가르침과 병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라는 책 이었다. 그녀는 당신 아들의 소유지였던 산 로렌조 (Saint Laurent) 마을에서 세상을 떠났다.(B. Origenes 1)

◆ 아버지 : 블래스 샤미나드 (Blaise Chaminade)

블래스 샤미나드는 상업에 종사했는데 상거래를 하는데 뛰어나고 예리한 감각을 지녔던 분이였다.

계속 늘어나는 가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리를 제작하는 곳에서, 또 다른 하나는 끌라우스뜨레 광장(Place de Claustre) 근처에 있는 천을 짜서 파는 곳에서 일을 했다. 1799.3.4일 샤미나드 신부가 스페인에 망명해 있는 동안 페리그에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 샤미나드 가정의 15 형제들

9명의 자녀는 아주 어릴 적에 하느님 품으로, 6명의 자녀만 생존함.

• 세례자 요한(Jean-Baptiste, 1745-1790)

형제들 중 제일 맏이였으며, 1762년 모든 수도회들이 진압될 때까지 예수회 회원이었다.

1771년 뮤시당의 산 까를로스(Saint Charles) 학교의 총책임자였고, 그 곳은 먼 훗날 샤미나드 신부를 교육시킬 곳이었으며, 샤미나드 신부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장소가 될 곳이기도 하다. 세례자 요한은 수도회의 공동체들이 흩어지기 직전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

• **블래스 (Blaise, 1747-1822)**

1762년 블래스는 이틀간의 단식 투쟁 끝에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레콜레토(Franciscaïn-Récollet) 수도회에 입회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 났을 때, 이탈리아로 망명을 가서 아씨시에서 살았으며, 산업혁명이 끝나자 프랑스로 돌아와 썬파스띠에(Saint-Astier, 페리그에서 가까움)에서 그 지역의 총 책임사제로 사목활동을 했다.

1822년 썬파스띠에에서 선종.

• **뤼크레시아 (Lucrece, 1750-1826)**

샤미나드 신부의 누나, 대모였으며, 1780년 변호사로 일하는 청년과 결혼했으나 결혼 첫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다.

자녀가 없었음. 아마도 그녀는 1810년 보르도로 떠났을 가능성이 많으며, 자신의 집에서 굴리엘모 요셉을 돌보며 살았을 것으로 본다.

1826년 세상을 떠났음. (B.Origenes 1)



(뤼프로아드(Rue Froide)거리 32번지,

샤미나드 가족의 생가, 오른쪽 건물 안쪽)

• **프란치스코 (François, 1755-1844)**

아버지의 친 짜는 직업을 이어받아 함께 일을 했고,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부인이 중병을 얻게 되었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나이차이가 아주 많은 젊은 처녀 세실리아와 사랑을 하게 된다. 결국 3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된다. 부인과 사별한 후 계속해서 세실리아와 살게 되고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은 후, 정식결혼을 했고 두 달 후에 교회에서 혼인식을 하게 된다.(B.Or 1) 그의 사업은 번번히 실패를 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그의 형제인 굴리엘모 요셉 샤미나드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현재 살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후손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랄라와 결혼한 셋째 딸 소피아(Sofia) 의 자손들이다.

• **루이스 하비에르(Louis-Xavier, 1758-1808)**

교구 사제였으며 굴리엘모 요셉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형제이다. 뮤시당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는 산 까를로스 학교에서 일하는 큰 형을 함께 도왔다. 두 형제는 망명지인 사라고사에서 다시 만났고 항상 일치된 마음으로 살았다. (B.Or 1)

세 레

탄생 당일 날, 썬쉴랭(Saint-Silain)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1790년 이 성당은 폐쇄 되었음.)

세례명은 제과점을 하는 대부 굴리엘모 모로(Guillaume Moreaux)의 이름을 받았는데 아마도 굴리엘모 모로는 샤미나드 신부 어머니의 친척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가 쪽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이 굴리엘모 샤미나드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굴리엘모 이름은 이미 그들의 가족 안에서 알고 있는 이름 이었다.(B.Or 1) 누나 뤼크레시아(Lucrece)는 11살이 되면서부터 굴리엘모 요셉의 대모가 된다.

1761.4.8일 탄생, 굴리엘모 샤미나드로 세례명을 받았음. 상업에 종사하는 블래스 샤미나드와 카타린 드 브통 정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남. 대부는 굴리엘모 모로, 대모는 뤼크레시아 마리아 ,두 사람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임. 대부 굴리엘모 모로는 글 쓰는 것을 몰라 세례장소에 나와있는 것을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함. 썬쉴랭(Saint-Silain)성당 주임신부 뤼브와(Dubois)

굴리엘모는 3살 더 많은 형 루이스와 특별히 친하게 지냈다. 두 형제는 페리그에 있는 “쁘띠뜨미씨옹 (Petite Mission)에서 그들의 첫 번째 교육을 함께 받았고, 1769-1770년에 루이스는 뮤시당으로 다시 공부러 하러 떠났으며, 굴리엘모는 뷔띠뜨미씨옹에 1년 더 머물렀다. 방학 때는 루이스가 돌아와 굴리엘모와 함께 놀곤 했는데, 루이스는 놀이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 가 몇 분간 머무르다 나왔다. 굴리엘모가 어느 날 루이스에게 방에 들어가 무엇을 하고 나오냐고 물었다.

루이스는 “내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방법을 큰 형 세레자요한(Jean Baptiste)에게 배웠고, 굴리엘모도 이 기도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으며, 결국은 큰 형으로부터 기도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건진 세례를 받을 때, 루이스는 예수회 창립 멤버이며 선교사였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영향을 받아 건진 세례명을 하비에르(Xavier)로 정했으며, **굴리엘모는 거룩한 동정녀이신 마리아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요셉을 닮기 위해 요셉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때부터 성 요셉 축일에 축일을 지내기를 원하셨다. (모든 공동체가 3월19일에 샬미나드 신부의 축일을 지냈다는 것을 그분의 여러 편지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편지:89,191,431 등...)(B.Origenes 1)

2.산 까를로스(Saint Charles)학교의 졸업생 그리고 교사



(구 소신학교와 가까운 거리. 현재는 남아있지 않음, 샬미나드 형제들이 학교 창설자들이 아니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실제적 운영을 한 사람들이다.)

샬미나드 신부는 20년간 이 학교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그 분의 인성교육과 크리스천 교육이 이루어질 곳이기도 하다. 또한 아주 다양하고 풍요로운 첫 번째 사도적 체험을 할 곳이며 그 체험들은 그 분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될 것들이다. 큰 형 세레자 요한은 이 시기에 샬미나드 신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학교는 원래 소신학교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사제지망생이 아닌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 교육 차원

에서 이들 모두에게도 신학생들과 똑 같은 교육을 시켰다(B. Origenes 2.2)

굴리엘모 요셉이 학교 입학 당시, 큰 형 세레자 요한은 학교 총 재정담당을 맡고 있었고, 루이스는 재학생이었다. 굴리엘모 요셉은 입학하면서 이미 사제가 될 생각 혹은 수도성소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11살 때 첫 영성체를 했는데,

그때 그의 신심은 아주 특별했다.

생 끌로드(Saint Claude)의 주교

안토니오 자코보샤몽(Antoine Jacques Chamon)은 이렇게 증언했다.

“내가 그 지역의 총 책임사제였을 때 당신들의 창립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의 신심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때 당시 12살밖에 안되었었지만,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의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Vasey, Chaminade p.42)



베르들레 성모님.

(Notre Dame de Verdélais)
(성모님께 기도 후 치유의 기적을 받고, 큰 형 세레자 요한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성당의 성모님.)

형 세레자 요한은 항상 기도를 함께 했고, 굴리엘모 요셉은 형으로부터 성 이냐시오 기도법을 배웠다.(B.Or 1) 14살 때 청원기를 거쳤고, 15살 때는 라틴어 공부를 마치고 교사자격을 얻었다.

산 까를로스 수도회의 규칙에 따른 노비시아 기간(1년6개월 혹은 2년)을 보냈는데, 형 세레자 요한이 그의 식별을 도왔고, 14살 혹은 15살 때 개별적 서원을 했다. 이 개별적 서원은 산 까를로스 수도회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샤미나드 신부에게 이 개별적 서원은 그의 전생애 걸친 유일한 서원이기도 하다.(B. Origenes 2.3)

3. 사도적 선교사로서의 내적인 양성(1776-1791)

- 1776-1778 : 학교 재정책임자로 있는 세레자 요한을 돕기 시작했는데, 샤미나드 신부는 회계부분을 맡아서 일했으며, 동시에 임시교사 혹은 어린아이들의 보조교사로서도 일을 했다.
- 1778-1782 : 뮤시당과 보르도에서 세레자 요한의 지도하에 신학 공부를 했고, 파리에서도 공부를 한 것 같다.(1782-1783)
- 1785.5.14 : 이 날 사제서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음.

사 목 활 동

굴리엘모 요셉은 뮤시당(3곳)에서 당신의 사목활동을 했다.



노트르담 드 록(Notre-Dame du Roc, 15세기).

현재는 산 호르헤(Saint Georges)성당에 모셔져 있다.

젊은 사제 샤미나드는 자주 이곳에서 기도를 했고 또 미사를 봉헌했다.

1. 학교 사목 : 큰 형 세레자 요한과 함께 사제로서 영적지도, 성소식별, 여러 가지 성사준비를 시켰다.
2. 노트르담 드 록(Notre-Dame du Roc)성지 사목:
노트르담 드 록 성모상은 피에타의 성모상과 유사한 스타일인데, 한가지 다른 점은 한 어린아이가 성모님 팔에 매달려 있다. 이 성모님은 굴리엘모 요셉에게 영적 영감을 주신분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3. 병원 사목 : 학교 옆에 있던 병원에서도 사목활동을 하셨으며, 이 병원은 오늘날 양로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사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고, 1789년 이후부터는 철학도 가르친 것 같다.

재정담당

샤미니드 신부가 알란느 신부(P.Lalanne)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있다.

“나는 재정에 관한 일을 16년 혹은 17년 동안 일해왔다. 재정상황은 너무나 빈곤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나는 재정 총 책임자(아마도 큰 형 세레자 요한일 것임)와 한번의 의견충돌 없이 서로 존중해 주며 일했다.” (편지 III-837, 1836년4월26일)

그의 형 프란치스코(페리그에서 상업에 종사)가 재정에 관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었다.

1784년, 우리가 이미 보아왔듯이 형 세레자 요한은 학교 전체 총 책임자가 되었고, 굴리엘모 요셉은 재정 총 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빚이 많아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고 굴리엘모 요셉은 이 어려움을 모두 받아 들여야 했다. 또 재정담당자로서 많은 불쾌감을 느꼈다. 먼 훗날 그는,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썼다. “가장 마음이 슬픈 일은 모든 재정담당자들을 항상 비판한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전부터 지금까지도.” (편지II-498, 1832년1월20일) “내 생각에 재정 담당을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 모두를 이끌어가는 것 보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재정 일을 책임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하고 영적인 강한 힘이 필요한 것 같다.” (편지III-590, 1831년5월10일)

뮤시당의 산 까를로스 학교는 많은 변화를 했다. 즉 뮤시당에서 보르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아주 견고했으며, 환기가 잘 되는 실내 시설과 운동장, 그리고 학교 정원, 이 모두가 잘 정리 정돈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문화의 중심지로 바뀌었으며, 모든 학업과 신앙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학교중의 하나로 변화되었다. 학교 운영팀인 샤미니드의 형제들은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마음을 모아 학교를 운영했다.

세 형제들은 이미 노령이 되어버린 그들의 부모님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모셔오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블라스 샤미니드는 당신의 일을 아들 프란치스코에게 넘겨주고 부인과 세 아들들과 함께 살았다.(B.Origenes 2.5) 프랑스 혁명의 결과, 1791년 빠스카 축제 기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그 해 마지막에는 보르도의 관할 행정부로 넘어갔다.



(페리그의 쎄프롱(Saint Front)주교좌 성당)

2011.4.8일 페리그에서 마리아니스트가족 창립자 굴리엘모 요셉 샤미니드의 탄생과 세례 2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이 문서에 실린 대부분의 자료들은 벨육 신부님(P. Eduardo Benlloch)의 저서 “마리아니스트들의 기원(En los origenes de la Familia Marianista,SPM,Madrid,2001)”에서 참고했음.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이 책을 권고함.}